

예술의거리 활성화 '16년 헛심'...여전히 '썰렁한 거리'

매년 수억 원 들여 '아시아문화예술활성화' 추진했지만 효과는 '미미' 골동품·화방 위주로 상권 형성 안되고 단발성 행사에 그쳐 침체 일로 상인들 하소연 속 광주시 "대인예술야시장 연계해 발전 방향 마련할 것"

광주시 동구 예술의거리를 활성화하려고 광주시가 올해로 16번째 수억 원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실제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일회성 행사에서 활성화 사업 기간에만 방문객이 반짝 몰리고 거리가 다시 침체를 거듭하는 등 근본적인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는 오는 18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광주 시청에서 '2025년 아시아문화예술 활성화 거점프로젝트(예술의거리)' 보조사업자를 모집한다고 공고했다.

이 사업은 지난 2009년부터 매년 추진됐으며, 광주시 동구 공동 예술의거리 등 아시아문화전당 주변 도심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총 사업비 9억원 중 예술의거리에 4억원, 대인예술야시장에 5억원이 투입된다. 최근 5년간 예술의거리 활성화에는 20여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문제는 16년에 걸쳐 연간 수억원을 투자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왔음에도 정작 예술의거리는 침체 일로라는 데 있다.

예술의거리는 광주시 동구 공동 중앙초등학교 입구에서 동부경찰서까지 320여m 구간, 5-18기 북관에서 중앙초등학교 후문까지 320여m 구간으로 구성된 십자형 거리다. 화방, 필방, 화실, 서예원, 공방 등 180여 개가 입주하고 있다.

하지만 규모에 비해 예술의거리 방문자는 턱없이 적다는 것이 예술의거리 상인들의 하소연이다.

광주시에 사업을 통해 집계한 연간 예술의거리 방문객은 2022년 2만여명, 2023년 2만 9000여명에 그쳤으며, 심지어 공연 프로그램을 하지 않은 2024년에는 전시, 체험 등 방문객 3270명이 찾아오는 게 전부였다.

이호철 예술의거리 상인회장은 "거리 활성화 차원이라고는 하나 단발성 행사를 위주로 사업을 하다 보니 방문객 증가에 도움은 되지만 규모가 크지

는 않다"며 "시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예술의거리가 대인시장뿐 아니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과 연계되고, 예술 거점 지역으로서 '예술 1번지'가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지난해의 경우 전시 위주의 사업을 하다 보니 방문객 유입 효과가 턱없이 적은 것도 있지만, 그보다 상가 종류와 접근성 등 예술의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걸림돌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업종이 골동품과 화방 위주로 돼 있다 보니 미술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제한적으로 찾게돼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예술의거리가 대로(금남로)와 한 블록 떨어져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고 행인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다고 광주시는 분석했다.

먹거리나 기념품 등 상권도 형성돼 있지 않은 탓에 인근 ACC와 관광 동선을 연계하려 해도 방문객들이 동명동으로 빠져나가고, 예술의거리로는 좀처럼 유입되지 않는다는 분석도 나온다.

상권이 상인·작가로 나뉘어 있는 탓에 서로 요구 사항이 상충돼 지자체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토로도 나오고 있다. 외부 단체·외부 예술인 참여를 배제해달라거나 공연자 선정시 거리 내 작가들을 우선 선정해달라는 등 요구가 많아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자체 유관부서에서는 예술의거리 활성화 사업을 '기피 업무'로 꼽는 현상도 나타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는 근본적인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거나 전반적인 업종 변화에 대한 공감대가 우선 형성돼야 한다고 보고 대책을 마련 중이다.

일단 올해는 최초로 대인예술야시장과 연계해 월 1회 이상 예술야시장을 운영하는 안을 추진한



10일 광주시 동구 공동 예술의거리가 오가는 사람 없이 텅 비어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다. 퇴근 시간대에 맞춰 예술의거리에서 마술, 음악, 연극 등 공연과 플리마켓, 미술장터 등을 운영해 방문객을 끌어모으는 계획도 세워졌다.

이와 더불어 올해부터는 상인, 작가들과 뜻을 모아 예술의거리 발전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안을 검토 중이다.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업종 변경, 상인 콘텐츠개발·교육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상권 자체가 일부만 한계를 갖고 있지만, 상인들과 변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충분히 생긴 만큼 장기적으로 개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며 "무작정 예산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 방문객 유입 효과를 늘릴 방법을 찾고 상인, 작가들과 함께 중·장기 계획을 세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김희수 진도군수 집무실·자택 등 압수수색

뇌물수수·직권남용 혐의...전남경찰, 금품 전달 정황 포착

경찰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김희수 진도군수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 1대는 10일 김군수 집무실과 자택, 관련 공무원 주거지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김군수는 A업체로부터 정탁과 뇌물을 받고, 경쟁업체의 항만시설 사용을 배제하는 등 권한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쟁업체는 2017년부터 진도항을 이용해 토석

을 운반하다 김군수 취임 이후 허가를 받지 못하자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A업체가 김군수에게 금품을 전달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금품이 경쟁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등 대가성으로 보고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김군수 휴대전화, 인허가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높은 파도·깊은 수심에 수색 난항...실종자 추가 발견 못해

여수 어선 침몰사고 야간수색 계속 조만간 잠수부 투입 수중 수색키로

여수 해상에서 침몰해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제22서경호' 실종자에 대한 해경의 수색이 난항을 겪고 있다.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 등의 기상여건이 좋지 못한 탓이다.

여수해경은 10일 "전날 야간부터 항공기 4대와 함선 44척을 동원해 실종자 5명에 대한 수색을 계속 진행하고 있지만 이날 오후까지 추가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경호 선체는 전날 사고 지점에서 370m 떨어진 채 수심 80m 아래 가라앉은 상태로 발견됐다.

선체는 침몰된 해저에서 조금씩 이동하고 있지만, 수색작업 등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 해경의 설명이다.

해경은 "실종자 수색을 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선체 인양은 아직까지 선사 측과 구체적으로 협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침몰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선박 인양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5m가량의 파도에 139t급 대형 선박인 서경호가 급작스럽게 침몰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점에서도.

결국 1996년 건조된 서경호의 노후화 정도 또는 선체 결함 여부나 개조사 사고 원인이 됐을 지에 대한 조사는 선체 인양이 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사고 해역에는 북서풍 조속 10-12m의 바람이 불고 1.5-2m파도가 치고 있다. 해경은 해군과 협조해 수중무인탐지기를 활용해 수중수색 작업도 진행 중이다.

해경은 10일 야간에 실종 선원들의 수색을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해경은 "출항 이후 항해 과정에서 암초 충돌은 없었던 것으로 예상된다. 합동 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도출해낼 것"이라며 "일정부분 수색이 종료되는대로 잠수부를 투입해 수중 수색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망자 5명중 4명의 선원의 검시 결과 사망원인이 익사로 확인됐고, 나머지 한명에 대한 검시도 진행 중이다. /김다인 기자 kdi@

기업 임원과 '접대 골프' 의혹

민형배 의원 '혐의없음' 결론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산 을)의원이 광주 지역 기업 임원과 '접대 골프'를 쳤다며 고발당했지만,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광주서부경찰은 민 의원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민 의원은 지난해 10월 6일과 13일 나주, 광주의 골프장에서 접대성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받아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발당했다.

당시 국정감사와 10·16 재보궐 선거운동이 이뤄지던 중이었던 점, 골프 라운딩을 함께 한 사람에 대기업 임원이 포함됐다는 내용도 고발장에 담겼다.

경찰은 골프 라운딩을 통해 민 의원이 받은 금전적 이익이 8만여원 수준에 불과하며, 함께 골프를 친 사람들이 민 의원의 직무·업무와 연관성이 없다고 불송치이유를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일보 73년 - 유튜브 2천만뷰 돌파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독교신문에 당선,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문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충북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